



CONTENTS

권두언
산업통상자원부 서성태 서기관
03

제8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개관
KBCH 장호민 센터장
05

MOP 8 위해성평가 및
관리에 관한 논의
농촌진흥청 임명호, 류태훈 연구관
11

비의도적 국가간 이동 및
비상조치
경희대학교 최승환 교수
17

의무준수위원회 활동 보고
경희대학교 최승환 교수
23

사회·경제적 고려,
추가의정서 및 기타 아젠다
KBCH 김기철 팀장
29

부대행사
KBCH 김원희 팀장
37

발행인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편집인** 장호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장 **발행일** 2017년 3월 **발행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편집위원** 구옥재 ㈜롤젠 부설연구소 부장, 권오석 경북대학교 응용생물학부 교수, 권택윤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자공학과 연구관, 김동광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교수, 박경식 청주대학교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장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디자인** ㈜비주얼스튜디오
「BIOSAFETY」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및 바이오안전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제도, 연구개발 동향, 위해성 평가, 커뮤니케이션 등의 이슈들을 매 반기마다 기획하여 발간하는(2회/년) KBCH 반기지로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계, 학회 및 협회, 언론기관, 산업계, 기타 단체(NGO 포함), 개인 등에게 무료배포되고 있습니다. 「BIOSAFETY」의 저작권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에 있으며, 자료 이용시 출처를 꼭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무료구독신청」 042-879-8304 www.biosafety.or.kr KBCH 발간자료**

권두언 卷頭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서성태 서기관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먼저「Biosafety」지 지면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망 보고서(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6)에서 향후 10~15년간 사회·경제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10대 유망기술의 하나로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을 선정하면서 동시에 바이오안전성 문제, 윤리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작금의 상황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는 가운데,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바이오안전성과 바이오산업화는 언뜻 보기에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바이오안전성이 바이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담보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측면에서 두 이슈는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적이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정책은 소

홀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게 운영되는 것도 새로운 바이오기술의 개발과 이용,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의 확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8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8)에서도 바이오기술의 산업화와 안전성 확보 간에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BIOSAFETY 이번 호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의 주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를 통해 당사국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 대표단의 현장 대응 상황과 결과, 향후 계획까지 폭 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관련 업계, NGO 등에서 1,000명이 넘게 참석했던 국제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논의에 참여한 것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2년간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코리아 바이오안전성 이니셔티브'

를 지원한 것과, 우리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당사국들이 참여한 'Asia BCH Family'의 결성과 그 활동을 발표하는 부대행사에 많은 당사국들이 참여하고 그 성과를 높이 칭찬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그간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배경으로 우리 대표단이 당사국회의의 석상에서 발전적 제안들을 개진함으로써 회의 결정문에 우리의 의견이 다수 반영된 점 또한 대표단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국가책임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업계, NGO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이번 당사국회의에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에도 힘을 것입니다. 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BIOSAFETY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BIOSAFETY 제작에 힘써 주신 장호민 센터장을 비롯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